



## 10. 핵심강점을 찾기 위한 강점탐색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점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태도</li> <li>핵심강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li> <li>SWOT분석을 통한 강점전략</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고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li> <li>핵심강점을 끌어내기 위한 태도와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li> <li>비즈니스 전략도구(SWOT)를 활용한 강점 활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핵심 강점을 찾기 위한 강점탐색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사실 저 역시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강점을 찾아내려는 노력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뤄냈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핵심 강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을 찾아내기 위한 필요한 태도로서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가 약점을 가지고 보완하는 전략보다는 강점을 더욱 더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작고한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스펙 고민을 취업할 때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성취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체로 성취한 경험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강점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점을 찾아내기 위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를 다섯 가지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건 못해, 저건 못해”라고 늘 위축되어있다면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강점이라는 것이 남보다 잘하는, 전 세계 1위, 국내 1위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내에서 잘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자꾸 위축되고 강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않고,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격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영어 못하는데 칭찬해주시고 이래서 전공도 영어를 하게 되고 “철상이 목소리 참 좋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있어서 사실 목소리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는데도 그런 격려를 통해서 방송도 고정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격려들이 저를 저평가하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과대평가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협한 사고의 틀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강점을 찾아 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학력이 높아야 한다.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자여야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여야 한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나이가 적어야 한다.” 이런 틀들이 있는데요. 이런 틀들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강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 이거 내가 해보니까 사진촬영을 내가 잘하네!” 구도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도를 잘 잡아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똑 같은 카메라를 써도 전혀 다른데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하더라도 그렇고 모듬 학습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딪혀보고 경험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잘하는구나.”, “아 난 사람 설득하는 것을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딪혀나가면서 직접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부딪히면서 “아, 이거 괜찮다. 내가 이 분야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년법칙, 아웃라이어. 이런 말도 있는데요. 10년 정도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것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든다. 한 번 악을 딱 물었다고 하면 이것이 내 분야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점도 강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 중고생 강의 갔을 때 많이 물어보는데요,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많이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몸에 힘을 빼야겠죠. 두려움이 없어야겠죠. 연습도 많이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영 못하는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머릿속에만 있으니깐 수영이 됩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해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겠지만 부지런히 내가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행동하고 따라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익어 나갈 거라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배워나가는 거라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세요? 금방 기억이 안 나시죠. 첫 번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편협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 번째가 무엇이든 직접 부딪혀 본다. 네 번째가 집요하게 한 번 파고들도록 한다. 다섯 번째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을 몸으로 적용하면서 몸으로 익힌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핵심 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핵심강점을 찾아내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법을 통한 강점탐색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중에서 수준 높은 질문이 수준 높은 인생을 만든다!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게 만들까요? 고착화된 나의

강력한 패턴 깨야 합니다. 즉, 고착화된 패턴을 깨고 정체성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발장은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경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조건 없이 경감을 놓아줍니다. 결국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증오했는데 장발장보다 자신이 더 사악했다는 자각에 이르자 슬픔과 혼란에 빠져 센 강에 몸을 던집니다.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자신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장발장처럼 잘못된 과거의 패턴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발장은 중요한 질문들을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로 던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외부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강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의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내가 과연 진짜인가를 생각해 보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이며,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점을 찾기 위한 수준 높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점을 통한 강점탐색입니다. 먼저 자신의 약점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강점을 찾아 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약점이 산만하다는 것이면, 이것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가 넘치는 강점으로 변할 것입니다. 덜렁댄다는 빠르다 또는 행동가의 모습으로 강점화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냉철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약점이라면 이것은 학습, 논리적, 합리적 태도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고 여린 약점은 감성, 공감능력이 높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등이나 피해의식도 겸손하고, 겸허하고, 성실함의 강점으로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점을 찾기 위한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먼저, 옆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을 법한 장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해 ‘내가 생각할 때 내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강점 찾기 인터뷰를 해 보는 것입니다. 강점을 찾기 위한 인터뷰 질문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저를 떠올리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거나, “저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솔직한 충고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Strengths Finder(스트렝스 파인더)검사를 통한 강점탐색입니다. 강점이란 무엇일까요? 마커스 버킹엄은 그의 저서에서 강점이란 어떤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강점은 재능, 지식,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자발적 반응, 동경, 빠른 학습속도, 만족감이 있으며, 지식은 전문적 지식은 사실적과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리더십, 경영기술, PT스킬, 전산기술, 문서작성능력에 해당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배워야 할 지식, 갖춰야 할 기술을 적어서 강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trengthsFinder검사는 34개의 테마 중 나의 강점 상위 테마 5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맥타기 기법을 통한 강점탐색입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가능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모두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느낌으로 써

보면 더 좋겠습니다. 만일 과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특정한 활동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온 과거를 통해 나만의 스토리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스토리를 써 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로 내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 당시의 상황, 마주친 역경, 결단, 변화행동, 성취 경험, 깨달음 등을 담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직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질, 역량인 전문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열정, 성실함, 도전정신, 도덕성을 담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한 강점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의미 있는 경험들을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의 직무적 적용 가능성을 이유를 들어서 기록해 보도록 합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이번에는 SWOT 분석을 통한 강점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SWOT 분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쓰는 전략도구라고 합니다. 이니셜을 따서 SWOT분석이라고 하는데요,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요소, Threat 위협요소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SWOT분석이라고 합니다. 강, 약점은 내적인 요소이고요, 기회하고 위협요소는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 번 써보라고 하면 좋습니다. 강점으로는 자신의 어떤 성격, 장점이라든지 역량, 경험, 공부, 스포츠 활동 등 이런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은 성격, 학점, 공부, 학위, 나이, 외국어 못하는 것, 경제 여건이 안 되는 것 등 이런 약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요소는 학교 내에 기회는 무엇이 있고, 대외적인 기회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가족 친지 등이 주는 기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기회를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위협요소도 있습니다. 노동환경이나 산업 환경이나, 학교도 입시제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또 국가나 사회나 어떤 분위기도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글로벌 영향력도 있어서 세계 경제가 또 어떠한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위협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써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점으로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 많고, 코치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많고 말하기와 글쓰기를 좋아한다. 만약 약점으로 가볍고 덜렁대고 성격이 욱하고, 강박증이 있고, 잔소리도 좀 있고, 잦은 경력 이동이 있다고 했을 때 기회 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적인 혹은 사회적인 성공 모델이 있고 인지도도 넓어지고, 독립할 기회가 있다. 근데 위협요소가 경쟁구조가 치열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다든지, 지방대라든지, 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위나 낮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리더로서 성장해서 조직에서 성과를 산출하고 경영자로 도약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강의와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자신만의 personal brand, 독립할 기회를 구축한다. 이렇게 한 번 우리 학생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강약점을 한 번 써보고, 위협요소와 기회요소를 써보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 등 복잡하게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SO전략은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외부환경의 기회를 어떻게 나에게 활용해서 강점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하고, ST전략 같은 경우에는 외부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ST전략, 즉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강점을 사용하고요. 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다면, 수학을 집중 학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점을 강화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WO전략 같은 경우는 약점을 극복하여서 외부의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WT전략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강약점과 위협요소와 그런 바탕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조금 성인 버전이지만 앞에 것을 다시 해보면 SO전략은 좋은 인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사업 조직을 키워나가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약점을 극복하는 거라면 잔소리가 만약에 있다. 이 잔소리를 코칭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이는 것을 싫어하는 체질을 자유로운 책임과 리더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축한다든지. 위협을 회피하는 ST전략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커리어 경험을 쌓으면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약한다든지. 약점을 최소화하는 WT전략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석사, 박사과정을 밟아 지방대 핸디캡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서 덜렁대는 면도 더 활동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도 SWOT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약점을 찾아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모둠 수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조언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